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기 간: 2025.10.25. (토) ~ 2025.10.29. (수)

출장지: 인도네시아 덴파사르

출장자: 이진희 연구위원, 이성욱 연구원

국토연구원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인도네시아 덴파사르
2. 출장기간: 2025년 10월 25일(토) ~ 2025년 10월 29일(수)
3.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	이진희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이성욱	

4. 출장목적

- 「행복도시 글로벌 위상 제고방안 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국제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행복도시의 고유 콘텐츠를 국제사회와 공유·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연구진은 행복도시의 대표 콘텐츠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국제기구 시티넷(CityNet)이 주관하는 SDG 시티어워즈(SDG City Awards)에 제안서를 제출함
 - 해당 콘텐츠는 ‘SDG 인프라 및 도시개발(SDG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덴파사르에서 개최되는 제4회 SDG 시티어워즈 시상식에 발표 및 대상 후보의 자격으로 참여하게 됨
- SDG 시티어워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제 시상 제도이며, 시상식 전후로 집행위원회 회의 등이 함께 진행됨
 - 본 시상식은 시티넷,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서울특별시가 공동 주관하며, 아시아·태평양 주요 도시 대표들이 모여 정책을 논의하고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시티넷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ExCom)와 연계해 매년 개최되고 있음
- 이번 참석을 통해 행복도시의 대표 콘텐츠를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집행위원회와 국제세미나 참석, 현장 방문,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출장 기대효과

- 행복도시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한국형 도시 모델을 국제사회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수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행복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노하우와 기술적 경험을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국가들과 공유하여 한국의 도시개발 모델과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시티넷, UN ESCAP, 유엔개발계획(UNDP) 등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국토연구원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도시정책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최신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우수사례를 습득하여 향후 도시부문 국제개발협력 연구 및 사업 수행에 활용할 수 있음

II. 출장일정

일정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10월 25일(토)	인천	덴파사르	(16:10) 인천 출발 (22:10) 인도네시아 덴파사르 도착	-
10월 26일(일)	덴파사르	덴파사르	(10:00-16:00) 시티넷 제45차 집행위원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청) 박상욱 기획조정관, 이한나 사무관, 오현주 · 오재욱 주무관 • (CityNet) Vijay Jagannathan 사무총장, 장재복 대표, 장영민 사업부장, Chris Di Gennaro SPO 등 • (서울시) 구홍석 국제관계대사,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 등 • (덴파사르시) Jaya Negara 시장 등 • 그 외 시티넷 회원국 도시 및 기관 관계자
10월 27일(월)	덴파사르	덴파사르	(09:30-12:30) Asia Pacific Zero Waste Day Seminar 참석 (14:00-20:00) SDG City Awards 행사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청) 박상욱 기획조정관, 이한나 사무관, 오현주 · 오재욱 주무관 • (CityNet) Vijay Jagannathan 사무총장, 장재복 대표, 장영민 사업부장, Chris Di Gennaro SPO 등 • (서울시) 구홍석 국제관계대사,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 등 • (덴파사르시) Jaya Negara 시장 등 • 그 외 시티넷 회원국 도시 및 기관 관계자
10월 28일(화)	덴파사르	덴파사르	(10:00-12:00) Cultural Site Visit 참석 (13:00-15:00) Nature Site Visit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청) 이한나 사무관, 오현주 · 오재욱 주무관 • (CityNet) Vijay Jagannathan 사무총장, 장영민 사업부장, Chris Di Gennaro SPO 등 • (덴파사르시) Jaya Negara 시장, Agus Aryawan 부시장 등 • 그 외 시티넷 회원국 도시 및 기관 관계자
10월 29일(수)	인천	인천	(07:45) 인천 도착	-

주: 출장일정 검증자료(항공권)는 부록 참조

III. 수행사항

1. 시티넷 제45차 집행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25.10.26(일) 10:00 ~ 16:00 / Bali Beach Convention

□ 참석자

- (원내) 이진희 연구위원, 이성욱 연구원
- (원외) 박상욱 기획조정관, 이한나 사무관, 오현주·오재욱 주무관 (행복청), Vijay Jagannathan Secretary General, 장재복 대표, 장영민 사업부장, Chris Di Gennaro Senior Program Officer, Wonseop Song Junior Program Officer (CityNet), Sung S. Shin Senior Evaluation Specialist (ADB), Jaya Negara Mayor (Denpasar city), 구홍석 국제관계대사,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 (서울시), 이지영 선임 (서울AI재단), Sung S. Shin Senior Evaluation Specialist (ADB), 남성민 Director (UN ESCAP), 그 외 시티넷 회원국 도시 및 기관 대표 관계자 등

□ 주요 내용

1) 개회사 및 축사

- 제45차 시티넷(CityNet) 집행위원회는 2025년 10월 26일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에서 개최되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40여 개 회원도시 및 기관이 참석하여 2024년도 사업성과와 2025년도 운영계획을 논의하였음
-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서울시가 2013년부터 시티넷 의장도시로서 회원도시 간 상호학습과 포용적 정책협력을 주도해 왔음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스마트기술과 도시회복력 결합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로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였다고 언급함
- 인도네시아 덴파사르시의 자이야 네가라(Jaya Negara) 시장은 환영사에서 발리의 ‘조화와 균형(Harmony and Balance)’ 정신이 도시 간 협력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회의가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논의의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함

2) 2024년도 사업성과 및 감사결과 보고

- 시티넷 비제이 자가나단(Vijay Jagannathan) 사무총장은 ‘비전을 행동으로 전환(Translating Vision into Action)’을 주제로 2024년도 사업성과를 보고하며, 회원도시 참여 확대와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시티넷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제고되었다고 평가함

- 2024년에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등과 협력하여 도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지원과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였음
- ESCAP 총회에서는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한 SDG 지역화(Localization of SDGs through Multi-level Governance)’ 세션을 주관하여, 지방정부가 글로벌 목표 달성의 핵심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권한과 재정 분권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 세션에는 60여 개 도시대표 및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지역 간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연례행사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또한 유엔의 ‘국제 제로웨이스트의 날(International Day of Zero Waste)’ 기념행사에 초청되어 아시아 도시의 폐기물 감축 및 순환경제 사례를 발표하고, 도시 차원의 기후대응 거버넌스 필요성을 제시함
- 시티넷 사무국은 시민참여형 폐기물 감축정책, 지역정부의 기술혁신, 민관협력 모델 등 다양한 실행사례를 소개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의 실천력 제고를 강조함
- 시티넷은 ESCAP·UNDP·ASEAN과 협력하여 ‘SDG 지역화(Localization)’ 및 ‘스마트·기후 적응도시 정책’을 주제로 5개 공동세션을 개최하고, 회원도시의 정책역량 강화와 연구협력체계를 공고히 함
- 특히 2024년 방콕 ESCAP 총회에서는 시티넷의 도시 간 네트워크 운영방식이 ‘다층적 정부협력(Multi-level Governance)’의 대표 모델로 긍정 평가됨
- 서울특별시와 공동 개최한 ‘스마트시티 프로그램(Smart City Program)’ 및 ‘스마트라이프 페어(Smart Life Fair)’에서는 회원도시 간 스마트 인프라 구축 경험이 공유되었으며, 데이터 기반 행정과 시민참여형 디지털혁신 전략이 논의됨
- 이를 통해 신규 회원도시의 스마트도시 추진 역량이 향상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 기반이 확립된 것으로 평가됨
- 2024년도 재무감사 결과, 총수입 1,156,000달러, 총지출 1,106,000달러로 순자산이 139,000달러 증가하여 재정 건전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고됨
- 필리핀 무카(Muka) 시정부가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지출내역 분류, 문서관리, 재무보고 절차 개선 등 5건의 개선사항을 권고하였고, 사무국은 이를 수용하여 회계 투명성 제고를 추진하기로 함

3) 2025년도 운영계획 및 제도개선

- 시티넷 사무국은 2025년을 ‘협력 심화기(Deepening Partnerships)’로 정의하고, 조직운영·재정·네트워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제시함
- 서울특별시와의 양해각서(MOU)를 2025년 12월까지 갱신하여 사무국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을 연장함으로써 재정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인도네시아 및 중국에 신규 지역코디네이터(Local Coordinator)를 배치하여 회원도시 간 현장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이들은 현지 프로젝트 관리 및 파트너십 확장을 담당함
 - 이는 대면 협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네트워크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됨
- 또한 2025년 중 온라인 협력포털 ‘시티넷 협력포털(CityNet Collaboration Portal)’을 전면 개편하여 행사정보, 정책사례, 연구자료 등을 통합 관리하고, 신규 회원 유치 및 정보공유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함

4) 회원도시 확대 및 신규가입 승인

- 신규 회원 가입이 승인되어 시티넷의 전체 회원 수는 총 151개 기관(정회원 100, 준회원 49, 기업회원 2)으로 확대됨
- 신규 정회원으로 파라칸(Parakan), 쿠팡(Kupang), 마돈(Madon), 부투안(Butuan), 나시누(Nasinu), 말레(Male), 톰한(Tomahan), 그라나다(Granada)가 승인되었으며, 준회원은 Urban Forum Kazakhstan, Dana Mitra Lingkungan, Green Efficient Energy Acceleration 3개 기관임
- 각 신규 회원도시는 현장 또는 영상발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핵심정책을 공유함
 - 피지 나시누(Nasinu) 시는 ‘기후회복력·포용성·경제성장’을 핵심축으로 하는 2030 지속가능도시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도시 간 연대가 지역 회복력의 기반임을 강조함
 - 필리핀 부투안(Butuan) 시는 데이터 기반 행정(Data Command Center)과 농업혁신 프로그램(AgroBoost)을 소개하며,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및 식량안보 확보 방안을 공유함
 - 몰디브 말레(Male) 시는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해 ‘부채-자연교환(Debt-for-Nature Swap)’을 통한 기후적응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함
 - 네팔 톰한(Tomahan) 시는 재해위험 대응형 회복탄력적 인프라 구축과 저탄소 도시계획 추진 현황을 발표함
 - 스페인 그라나다(Granada) 시는 2031년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추진계획을 소개하며, 문화·관광 교류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제시함
 - 그린 이피션트 에너지 액셀러레이션(Green Efficient Energy Acceleration)은 시민참여 기반 재생에너지 확산 활동을 소개하고, 시티넷의 ‘기후행동 파트너십(Climate Action Partnership)’에 적극 참여 의사를 표명함

5) 주요 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강화 논의

- 시티넷은 2025년부터 UN ESCAP, UNDP,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공동으로 SDGs 지역화(SDG Localization) 및 도시정책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다자협력 제도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함
 - 이를 통해 도시 간 지식교류를 체계화하고 정책 확산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함

- 제로웨이스트재단(Zero Waste Foundation) 및 AIM 컨그레스(AIM Congress)와 신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폐기물 저감 및 순환경제 정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함
 - 해당 협력은 도시 차원의 자원순환 모델 정립과 기후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시티넷 사무국은 ‘제로웨이스트시티(Zero Waste City)’ 아젠다를 중심으로 회원도시의 12개 우수사례를 수집·분석하여, 베이징 칭화대학교 국제폐기물관리포럼에서 발표함

6) 향후 추진방향

- 시티넷은 2026년까지 도시 간 지식공유 및 실행력 강화를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실천형 협력모델을 구축하기로 함
 - 스마트시티 아카데미(Smart City Academy), 도시 SDG 포럼(Urban SDG Forum), 제로웨이스트워크숍(Zero Waste Workshop)을 정례화하여 실무자 중심의 교육·연수체계를 강화하기로 함
 - ESCAP, UNDP, ASEAN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도시 간 다층적 거버넌스 협력을 제도화하고, 국제기구-지방정부 연계모델을 발전시키기로 함
- 서울특별시와의 협력 연장을 통해 사무국 재정기반을 안정화하고, 회원 분담금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로 함
- 차기 제46차 집행위원회는 2026년에 개최될 예정이며, 2025년도 사업성과, 예산집행 현황, 신규 MOU 이행결과를 점검하고 차기 전략계획을 논의하기로 함



2. Asia Pacific Zero Waste Day Seminar

□ 일시 및 장소 : 2025.10.27(월) 09:30 ~ 12:30 / Bali Beach Convention

□ 참석자

- (원내) 이진희 연구위원, 이성욱 연구원
- (원외) 박상욱 기획조정관, 이한나 사무관, 오현주·오재욱 주무관 (행복청), Vijay Jagannathan Secretary General, 장재복 대표, 장영민 사업부장, Chris Di Gennaro Senior Program Officer, Wonseop Song Junior Program Officer (CityNet), Sung S. Shin Senior Evaluation Specialist (ADB), Jaya Negara Mayor, Agus Aryawan Vice Mayor (Denpasar city), 구홍석 국제관계대사,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 (서울시), 이지영 선임 (서울AI재단), Samad Agirbas President (Zero Waste Foundation), Vraie Cally Balthazaar Mayor (Colombo Municipal Council), Marifran Carazo Mayor (Granada City), Mohammad Azaz Administrator (Dhaka North City Corporation), 그 외 시티넷 회원국 도시 및 기관 대표 관계자 등

□ 주요 내용

1) 개회사 및 개최 목적

- 본 세미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시의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전환 촉진’을 주제로 개최되어, 도시 차원의 폐기물 감축과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 본 세미나는 지방정부 지도자에게 제로웨이스트 개념을 확산시키고, 정책과 시민행동을 연계한 실행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 인도네시아 덴파사르시의 아구스 아리아완(Agus Aryawan) 부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발리의 전통 철학인 ‘트리 히타 카라나(Tri Hita Karana, 인간·자연·신 간의 조화)’ 정신을 언급하며, 제로웨이스트 운동이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문화적 가치와 행동양식의 전환으로 확산되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인도네시아 내 홍수 및 해양오염 사례를 언급하며, “도시 간 연대와 시민의 참여가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의 핵심”이라고 강조함

2) 국제협력 기반 조성 및 MOU 체결

- 세미나에서는 터키의 영부인이자 유엔 제로웨이스트 고위자문위원회 의장인 에미네 에르도안 (Emine Erdoğan)이 영상을 통해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에르도안 의장은 “제로웨이스트는 폐기물 관리 기술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는 세계적 실천운동”이라며, “국가·도시·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전 지구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특히 터키가 주도하여 제정된 ‘국제 제로웨이스트의 날(International Day of Zero Waste, 매년 3월 30일)’ 을 계기로, 전 세계가 행동 중심의 순환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 시티넷과 제로웨이스트재단(Zero Waste Foundation) 간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시의 제로웨이스트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협력체계가 공식적으로 출범함
- 양 기관은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정책 협력 △도시 간 모범사례 확산 △회원도시 역량강화 프로그램 공동운영 △공동연구 및 정책자문 수행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제로웨이스트재단 대표단은 “제로웨이스트는 생활방식의 혁신이며, 교육·연구·정책이 상호 연결될 때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 고 강조함
- 시티넷 비제이 자가나단 사무총장은 “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도시화를 겪고 있으며, 도시 차원의 행동 변화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불가능하다” 고 언급하며 협력을 통한 도시 거버넌스 강화를 약속함

3) 기조연설: 도시의 책임과 글로벌 연대

- 시티넷 자가나단 사무총장은 ‘비전에서 행동으로: 제로웨이스트 도시 건설(From Vision to Action: Building Zero Waste Cities)’ 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함
- 그는 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 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배출하고 있으며, 급속한 도시화와 생활수준 향상이 폐기물 발생량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함
- “제로웨이스트는 환경보호를 넘어 도시의 문화·행정·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혁신 전략” 이라며, 시민 참여와 지방정부 주도의 행동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함
- 자가나단 사무총장은 “도시의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15%를 차지한다” 고 설명하며, 도시정부가 기후변화 완화의 최전선에 있음을 지적함
- 폐기물 분리배출, 재활용, 유기물 자원화 등 단계별 개선을 위한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수거·운반·처리의 전 과정에서 재정 부족이 가장 큰 장애요인” 이라고 지적하며, 다자개발은행(MDBs), 민간투자자, 국제기구의 재원 연계 필요성을 제안함
- 시티넷은 제로웨이스트재단과 협력하여 도시의 역량강화와 자원조달 모델 구축을 병행 추진하기로 함

4) ‘제로웨이스트 도시 선언(Zero Waste Cities Declaration)’ 채택

- 세미나 후반에는 회원도시 대표단이 공동으로 ‘제로웨이스트 도시 선언(Zero Waste Cities Declaration)’ 을 낭독하고,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위한 구체적 행동의지를 천명함
- 콜롬보(Colombo, 스리랑카), 일로일로(Iloilo, 필리핀), 덴파사르(Denpasar, 인도네시아) 등 3개 도시 대표가 선언문을 낭독하며, 도시 간 연대와 공동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함
- 선언문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DG 12) 이행 △순환경제 및 자원 효율성 제고 △시민참여 확대 △국제협력 및 지식공유 강화 등을 핵심 원칙으로 명시함

- 선언문 낭독 이후, 참석자 전원이 발리 전통의식인 ‘쿨쿨(Kulkul)’ 타종 행사에 참여하여 도시 간 연대와 공동의 행동의지를 상징적으로 표명함
 -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시가 공동으로 제로웨이스트 운동 확산과 실행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상징적 행위로 평가됨

5)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본 세미나는 제로웨이스트를 단순한 폐기물 관리정책이 아닌, 도시정책·문화·경제를 포괄하는 통합적 전환 아젠다로 제시하였음
 - 시티넷은 도시 간 협력뿐 아니라, 시민행동 변화와 제도혁신을 결합한 ‘거버넌스 기반 순환경제 모델(Governance-based Circular Economy Model)’ 을 제시함
- 시티넷-제로웨이스트재단 간 양해각서 체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시들이 지식공유-정책협력-재정연계의 삼중 구조를 통해 순환경제 전환을 제도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선언문 채택을 통해 회원도시들이 유엔의 ‘국제 제로웨이스트의 날(International Day of Zero Waste, 3월 30일)’ 등 글로벌 캠페인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행동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마련함
 - 향후 시티넷은 회원도시의 정책·기술·금융 역량을 통합하여 ‘제로웨이스트 도시 네트워크(Zero Waste Cities Network)’ 를 구축하고, 지역 간 공동연구 및 연례포럼을 통해 실질적 실행체계를 강화할 예정임



3. SDG City Awards 행사

□ 일시 및 장소 : 2025.10.27(월) 14:00 ~ 20:00 / Bali Beach Convention

□ 참석자

- (원내) 이진희 연구위원, 이성욱 연구원
- (원외) 박상욱 기획조정관, 이한나 사무관, 오현주·오재욱 주무관 (행복청), Vijay Jagannathan Secretary General, 장재복 대표, 장영민 사업부장, Chris Di Gennaro Senior Program Officer, Wonseop Song Junior Program Officer (CityNet), Sung S. Shin Senior Evaluation Specialist (ADB), Jaya Negara Mayor (Denpasar city), 구홍석 국제관계대사, 김수덕 글로벌 도시정책관 (서울시), 이지영 선임 (서울AI재단), Diana Torres Regional Governance Advisor (UNDP), Samed Agirbas President (Zero Waste Foundation), 남성민 Director (UN ESCAP), Dereje Senshaw Deputy Director (GGGI), 그 외 시티넷 회원국 도시 및 기관 대표 관계자 등

□ 주요 내용

1) 개회사 및 개최목적

- 제4회 SDG City Awards는 시티넷·UN ESCAP·서울특별시가 공동 운영하는 도시 SDG 플랫폼 ‘Urban SDG Knowledge Platform’의 연례 프로그램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현지화(Localization)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도시 간 상호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2025년 공모에는 12개국 51개 도시 및 기관이 총 100건 이상의 정책사례를 제출하였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22건이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고, 이 중 11건이 최종 수상작으로 발표되었음
 - “지역의 지혜를 바탕으로 도시의 조화를 구축하다(Building Urban Harmony Rooted in Local Wisdom)”를 주제로, 지역문화·기술혁신·포용적 도시정책의 결합을 강조함
- 시티넷 자가나단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도시는 SDGs 실현의 최전선에 있으며, 시민참여와 지방정부의 혁신이 글로벌 목표 달성의 핵심”이라고 언급함
 - 그는 “본 시상식은 단순한 수상이 아닌 도시 간 학습과 협력의 장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2) 시상 부문 및 주요 사례 발표

- 시상식은 6개 주제 부문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수상 도시는 추진 배경·성과·교훈을 발표함
 - ① 포용적 SDG 리더십(Inclusive SDG Leadership)
 - 알마티(Almaty, 카자흐스탄)는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티 접근성 지도(City

- Accessibility Map)’ 를 구축하고, 15,000여 개 공공시설의 접근 수준을 시민이 실시간 평가·공유할 수 있도록 함
- 문틴루파(Muntinlupa, 필리핀)는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S.A.F.E.R. 프로그램’ 을 운영하여 행정·복지·사법 서비스를 통합함
 - 로하스(Roxas, 필리핀)는 팬데믹 시기에 시행된 식량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연간 4만 가구에 15kg의 쌀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Bugas Para Sa Taga Roxas’ 를 추진함
- ② SDG 도시환경 영향(SDG Urban Environment Impact)
- 수라바야(Surabaya, 인도네시아)는 31.5ha 규모의 맹그로브 숲을 복원하고 생태관광과 지역 경제를 연계한 ‘Mangrove Botanical Garden’ 을 조성하여 블루카본 저장과 재해 완화 효과를 달성함
- ③ SDG 인프라 및 도시개발(SDG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 콰탄(Kuantan, 말레이시아)은 구도심을 예술·문화 중심지로 재생하는 ‘Kuantan Art Street 프로젝트’ 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결합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대한민국)은 복합커뮤니티센터(Complex Community Center)를 중심으로 5분 생활권 내 공공서비스 통합 제공 모델을 구축함
- ④ SDG 지역혁신(SDG Grassroots Innovation)
- 반다아체(Banda Aceh, 인도네시아)는 여성 주도형 폐기물 수거 거점을 조성하여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고, 800명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함
 - 수방자야(Subang Jaya, 말레이시아)는 주민이 주도하는 재난대응 프로그램을 도입해 실시간 위험정보 공유와 커뮤니티 대응체계를 구축함
- ⑤ SDG 혁신부문(SDG Breakthrough Innovation)
- 다카(Dhaka, 방글라데시)는 GIS 기반 도시계획 플랫폼을 구축해 시민이 토지이용·교통·환경계획을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시스템을 도입함
 - 케손시티(Quezon City, 필리핀)는 ‘Joy is a Farm’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지자체·주민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식량복지 모델을 제시함
- ⑥ SDG 도시브랜딩 및 공공외교(SDG City Branding & Public Diplomacy)
- 자카르타(Jakarta, 인도네시아)는 시장 직속 ‘SDGs Coordination Team’ 을 설치해 도시 전 부문 정책·재정·성과를 통합 관리하고, 시민참여형 평가시스템을 운영함

3) 주요 질의 및 토론

- 다카(Dhaka, 방글라데시)
 - (질의) 여러 도시계획 시스템을 하나의 GIS 플랫폼으로 통합한 과정과 데이터의 정책 활용방안이 논의되었음

- (답변) 기존 용도·밀도·환경계획 등 모든 공간데이터를 단일 시스템에 통합하고, 시민이 실시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 중임. 시민 의견은 도시계획 검토 과정에 반영되며, 행정기관이 데이터 품질을 주기적으로 검증함
- (평가) 데이터 개방과 시민참여를 결합한 투명한 도시계획 시스템으로, 협업적 거버넌스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로 평가됨
- 수라바야(Surabaya, 인도네시아)
 - (질의) 맹그로브 복원사업이 도시개발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그 제도적 기반은 무엇인지가 논의되었음
 - (답변) 1978년 제정된 도시특별계획에 근거하여 공공녹지 20% 확보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블루카본 정책과 연계해 어업공동체의 생계와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평가) 법제 기반의 장기정책과 중앙정부 협업체계가 강점으로, 환경·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한 대표 사례로 평가됨
- 문틴루파(Muntinlupa, 필리핀)
 - (질의) 여성·아동폭력 대응을 위한 ‘S.A.F.E.R.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과 제도적 내구성에 대한 질의가 제기되었음
 - (답변) 피해자 지원과 예방활동을 병행하는 이원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인지예산(연 5%)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정권 교체 시에도 제도의 연속성을 유지함. 또한 남성 참여형 프로그램 ‘CATROPA’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병행함
 - (평가) 법·예산 기반의 제도화를 통해 젠더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확산 가능성을 확보한 모범사례로 평가됨
- 콰탄(Kuantan, 말레이시아)
 - (질의) 구도심 재생사업 ‘Kuantan Art Street’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타 지역 확산 가능성이 논의되었음
 - (답변) 도시종합계획(Local Plan 2035)에 근거한 장기 전략으로 추진 중이며, 주민 및 민간이 유지관리 주체로 참여함. 유산보전 및 관광수익의 재투자 구조를 통해 자립형 재생모델을 구축함
 - (평가) 공공·민간 협력형 장기계획과 커뮤니티 역량화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로 평가됨
- 수방자야(Subang Jaya, 말레이시아)
 - (질의) 재난대응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답변) 상시 신고체계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이 직접 위험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지속적인 모의훈련과 다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공동체 기반의 회복력을 강화함
 - (평가) 기술 기반의 커뮤니티 참여와 지속적 학습체계가 결합된 우수사례로 평가됨

- 로하스(Roxas, 필리핀)
 - (질의) 긴급식량지원 프로그램의 제도화 과정과 재정적 지속성 확보 방안이 논의되었음
 - (답변) 사업은 지방조례로 제도화되어 예산이 매년 자동 배정되며, 정치적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설계됨
 - (평가) 위기대응정책을 상시복지로 전환하여 정치적·재정적 내구성을 확보한 사례로 평가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NAACC, 대한민국)
 - (질의) 복합커뮤니티센터(Complex Community Center)의 기후회복력 설계요소와 시민참여 기반 운영체계에 대한 질의가 제기되었음
 - (답변) 설계공모 단계부터 자연친화·탄력적 설계 원칙을 적용하였으며, 녹지율 40% 확보, 제로에너지건축(ZEB), 태양광·자연채광·환기시스템을 도입함.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주민 요구를 반영하였으며, 이용자 만족도조사 및 사업평가를 정례화하여 피드백 체계를 운영함
 - (평가)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공공서비스 통합성을 결합한 혁신적 도시 인프라 모델로 평가됨
- 알마티(Almaty, 카자흐스탄)
 - (질의) 시민참여형 디지털 접근성 지도 구축의 지속가능성과 현장 검증체계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 (답변) 시민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성 정보를 직접 등록·수정할 수 있으며, 장애인 단체가 현장 검증에 참여함
 - (평가) 실시간 피드백 기반의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사회적 포용성을 제도화한 점이 인상적으로 평가됨
- 케손시티(Quezon City, 필리핀)
 - (질의) 도시농업 프로젝트 ‘Joy is a Farm’의 효과 측정과 성과관리 방안이 논의되었음
 - (답변) 2021년 설립된 도시농업혁신센터를 통해 프로그램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대학생이 도시농업 실습과 지역 확산에 참여함
 - (평가) 교육-지역사회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SDG 실천모델로 평가됨
- 자카르타(Jakarta, 인도네시아)
 - (질의) 자발적 로컬리뷰(VLR, Voluntary Local Review)의 정책 통합 과정과 이해관계자 협력 방식이 논의되었음
 - (답변) 2022년 1차, 2024년 2차 VLR 발간을 통해 부문별 정책 권고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재원을 확보함. 시민은 온라인 대시보드를 통해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함
 - (평가) 계획-이행-재원-평가 전 주기를 SDGs 틀로 통합한 대도시 거버넌스 혁신사례로 평가됨



▲ SDG City Awards 행사 전경

▲ SDG City Awards 행사 전경

▲ SDG City Awards 행사 전경

▲ SDG City Awards 행사 전경

▲ SDG City Awards 행사 전경

▲ SDG City Awards 행사 전경

4) 시사점

- 제4회 SDG City Awards는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의 실질적 확산 매커니즘을 보여준 행사로 평가됨
- 현장평가를 통한 대상은 인도네시아 반다야체시의 ‘여성의 폐기물 관리 참여(Women in Waste Management)’ 프로젝트가, 최우수상은 말레이시아 수방자야시의 ‘재난 회복력 전략 계획(Disaster Resilience Strategic Plan)’ 이, 우수상은 필리핀 케손시티의 ‘농업에서 찾은

기쁨(Joy is a Farm)’ 프로그램이 수상하였고, 이들은 자문단으로 초청돼 2026년 시티넷의 지속가능도시 발전사업에 참여할 예정임

- 수상사례 전반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다카·자카르타) ▲법·제도적 지속성(문턴루과·룩사스) ▲기후회복력·친환경 설계(수라바야·행복청) ▲시민참여형 거버넌스(알마티·수방자야) ▲학습·혁신 네트워크 구축(케손시티)이 공통된 성공요인으로 도출됨
- 시티넷은 향후 수상도시 간 후속 협력사업 추진, 정책연구 강화, 지식공유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SDG 도시정책의 지역 확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자가나단 사무총장은 “올해는 단순한 벤치마킹을 넘어 실제 정책 적용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 언급함

4. 문화유적지 및 자연현장 방문

□ 일시 및 장소 : 2025.10.28(화) 10:00 ~ 15:00 / Puri Agung Jrokuta, Taman Hutan Raya Ngurah Rai

□ 참석자

- (원내) 이진희 연구위원, 이성욱 연구원
- (원외) 이한나 사무관, 오현주·오재욱 주무관 (행복청), Vijay Jagannathan Secretary General, 장재복 대표, 장영민 사업부장, Chris Di Gennaro Senior Program Office (CityNet), 이지영 선임 (서울Ai재단), Jaya Negara Mayor, Agus Aryawan Vice Mayor (Denpasar city), 그 외 시티넷 회원국 도시 및 기관 대표 관계자 등

□ 주요 내용

1) 방문 대상 및 취지

- 본 프로그램은 도시 간 지속가능발전(SDGs) 실천사례 공유 외에도, 현지 문화유산과 자연생태지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방문도시인 덴파사르의 지역 지혜와 생태자원을 체험하고, 향후 도시정책 기획 시 문화·환경적 맥락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화유적지로는 발리의 전통 왕궁인 푸리 아궁 조르쿠타(Puri Agung Jro Kuta)를, 자연현장으로는 대규모 맹그로브 생태공원인 타만 후탄 라야 응우라라이(Taman Hutan Raya Ngurah Rai)를 방문함
- 본 현장 방문은 도시계획 및 개발정책 수립 시 문화적 연속성과 생태회복력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와 운영이 중요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2) 문화유적지 방문: 푸리 아궁 조르쿠타(Puri Agung Jro Kuta)

- 푸리 아궁 조르쿠타는 덴파사르 시내에 위치한 19세기 건립의 전통 발리 왕궁으로, 1820년경 Dewa Agung Jambe Badung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전통 발리 건축양식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화려한 문살·정교한 석조조각·넓은 마당을 갖춘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평가됨
- 현재까지도 왕가의 후손이 거주하며, 왕궁 내에서는 일부 전통 의식이 지속적으로 거행되고 있어 발리의 문화적 맥락과 왕권의 역사적 연속성을 상징함
 - 해당 왕궁은 덴파사르 시의 주요 관광코스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발리의 전통문화·예술·건축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 본 방문을 통해 도시개발 과정에서도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보존하면서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활용하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형 도시재생 모델’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음
 - 전통건축물이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문화관광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사례로서, 향후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도시브랜딩 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함

3) 자연현장 방문: 타만 후탄 라야 응우라라이(Taman Hutan Raya Ngurah Rai)

- 타만 후탄 라야 응우라라이는 덴파사르 시와 바둥 군(Badung Regency)에 걸쳐 있는 약 1,373 헥타르(ha) 규모의 대형 맹그로브 생태보존구역으로, 발리 남부의 주요 ‘그린 벨트(Green Belt)’로 기능함
 - ‘타후라 응우라라이 맹그로브 포레스트 파크(Tahura Ngurah Rai Mangrove Forest Park)’로도 불리며, 보드워크 산책로·조류관찰대·환경교육센터 등이 구성되어 있음
- 이 지역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블루카본(Blue Carbon) 저장과 해안침식 완화, 생물다양성 보전 등 기후회복력 증진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
 - 도시 중심부 인근에 위치해 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녹지 공간으로, 휴식·교육·생태관광 기능이 복합된 생태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본 방문을 통해 도시계획 과정에서 생태녹지 확보 및 접근성 보장이 중요함이 확인되었으며, 도시·지방정부가 맹그로브 및 녹지 생태계를 보존하면서도 관광·교육·휴식 기능을 통합한 다기능 생태공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을 확인함

4) 시사점

- 문화유산과 자연생태지는 도시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핵심 자원임이 확인되었음
- 도시정책 수립 시 ‘문화적 정체성 유지’와 ‘자연생태 점점 확보’가 병행될 때,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도시구조 형성이 가능함
- 푸리 아궁 조르쿠타와 타만 후탄 라야 응우라라이 사례는, 도시개발과 보전이 상충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현장사례로 평가됨



▲ 문화유적지 방문: 푸리 아궁 조르쿠타(Puri Agung Jro Kuta)



▲ 자연현장 방문: 타만 후탄 라야 응우라라이(Taman Hutan Raya Ngurah Rai)

첨부 1. 출장자 항공권

현대아산주식회사

EOMJEONGYUN
TEL. 02-3669-3033 | FAX. 02-3669-3034
ejy3033@hdesan.com

Provided by **TOPAS**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e-Ticket Itinerary & Receipt

항공권 발행일 : 2025년 10월 15일



승객성명 Passenger Name LEE/JIN	항공권번호 Ticket Number 1802764392925	예약번호 Booking Reference DYZZYZ
---------------------------------------	---	---

1	서울 ICN Incheon International Terminal No: 2 25OCT25(토)16:10 (Local Time)	덴파사 DPS Ngurah Rai Terminal No: 1 25OCT25(토)22:10 (Local Time)	KE0633 예약번호: DYZZYZ Operated by KE KOREAN AIR
----------	--	--	--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항합니다.

예약등급 Class M(일반석)	예약상태 Status OK (확약)	비행시간 Flight Time 7시간
운임 Fare Basis MLU02RKS	항공권 유효기간 Validity -- 25OCT26	SKYPASS 마일리지 SKYPASS Miles 3282
항공사 항공사 IPC	기종 Aircraft type AIRBUS A330-300	좌석번호 Seat Number 29H

2	덴파사 DPS Ngurah Rai Terminal No: 1 28OCT25(화)23:50 (Local Time)	서울 ICN Incheon International Terminal No: 2 29OCT25(수)07:45 (Local Time)	KE0432 예약번호: DYZZYZ Operated by KE KOREAN AIR
----------	--	--	--

예약등급 Class M(일반석)	예약상태 Status OK (확약)	비행시간 Flight Time 6시간 35분
운임 Fare Basis MLU02RKS	항공권 유효기간 Validity -- 25OCT26	SKYPASS 마일리지 SKYPASS Miles 3282
항공사 항공사 IPC	기종 Aircraft type BOEING 787-9	좌석번호 Seat Number 28G

- 예약등급은 항공사 FLIGHT 정보에 따라 표기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안 또는 무임 항공권과 경우 예약 등급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률이 상이하거나 마일리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스케줄, 기종 및 좌석등급(서비스클래스)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예고없이 항공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항공기 고체용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택하신 좌석이 변경될 수 있으나 탑승수속 시 기종 및 좌석번호를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정보는 항공사나 공항 상황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 운임정보 Ticket/Fare Information

연결항공권 Cony Ticket No.	-
운임산출내역 Fare Calculation	SEL KE DPS396.34KE SEL396.34NUC792.68END ROE1390.191051
Tour Code Tour Code	XSDQCABGQ
산출운임 Fare Amount	KRW 1102000(Paid Amount KRW 1102000)
자불취회 Equip Fare Paid	-
세금/항공사 부과 금액 Taxes/Carrrier imposed Fees	Paid Amount KRW 1233100
세금 Taxes	KRW 24000BP 2079005
유류할증료 Fuel Surcharge	* 2025년 1월 1일 발간일 및 탑승일 기준 한국 출발 세금(BP)은 국제여객항공이용료(인턴/김포 17,000원, 기타 12,000원), 출국납부금 7,000원으로 구성되며 12세 미만 소마는 출국납부금이 면제됩니다.
부가수수료 Service Fees	KRW 78400YR
총산출금액 Total Amount	-
지불수단 Form of Payment	KRW 1225100 (Total Paid Amount KRW 1225100)
발행일/발행처 e-Ticket Issue Date/Place	CCVI XXXXXXXXXXXX6824 / XXXX/00
	15OCT2025 / 17326120 / SELK1320Y
	* 지불금액은 (Total Paid Amount)에 표기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Notice

- 본 e-티켓 확인증과 함께 제공된 발착 고지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티켓 확인증은 탑승수속시, 입출국/세관 통과시 제시하도록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잘 마힌 기간 동안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e-티켓 확인증의 미출과 여권검역 미통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본 e-티켓 확인증은 e-티켓의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차변에 불과하고 소지인에게 당해 운송 관련 어떠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본 e-티켓 확인증을 임의로 위변조할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한항공 또는 해당항 e-티켓 소지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현대아산주식회사

EOMJEONGYUN
TEL. 02-3669-3033 | FAX. 02-3669-3034
ejy3033@hdasan.com

Provided by **TOPAS**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e-Ticket Itinerary & Receipt

항공권 발행일 : 2025년 10월 15일



✈️ 승객성명 Passenger Name LEE/SEONG WOOK	🎫 항공권번호 Ticket Number 1802764392926	📄 예약번호 Booking Reference DY2ZY2
---	---	---

1

서울 ICN
Incheon international
Terminal No: **2**
25OCT25(토)16:10 (Local Time)

덴파사 DPS

Ngurah rai
Terminal No: **1**
25OCT25(토)22:10 (Local Time)

KE0633
예약번호: **DY2ZY2**
Operated by **KE**
KOREAN AIR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에서 운항합니다.

✈️ 예약등급 Class: M(일반석)	✈️ 예약상태 Status: OK (확약)	✈️ 비행시간 Flight Time: 7시간
✈️ 운임 Fare Basis: MLU0ZRKS	✈️ 항공권 유효기간 Validity: -- 25OCT25	✈️ SKYPASS 마일리지 SKYPASS Miles: 3282
✈️ 수하물 Baggage: 1PC	✈️ 기종 Aircraft type: AIRBUS A330-300	✈️ 좌석번호 Seat Number: 28B

2

덴파사 DPS
Ngurah rai
Terminal No: **1**
28OCT25(화)23:50 (Local Time)

서울 ICN

Incheon international
Terminal No: **2**
29OCT25(수)07:45 (Local Time)

KE0432
예약번호: **DY2ZY2**
Operated by **KE**
KOREAN AIR

✈️ 예약등급 Class: M(일반석)	✈️ 예약상태 Status: OK (확약)	✈️ 비행시간 Flight Time: 6시간 55분
✈️ 운임 Fare Basis: MLU0ZRKS	✈️ 항공권 유효기간 Validity: -- 25OCT25	✈️ SKYPASS 마일리지 SKYPASS Miles: 3282
✈️ 수하물 Baggage: 1PC	✈️ 기종 Aircraft type: BOEING 787-9	✈️ 좌석번호 Seat Number: 29A

- ✈️ 예약등급은 항공사 FLIGHT 정보에 따라 보기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할인 또는 무인 항공권의 경우 예약 등급에 따라 아실리지 적립률이 상이하거나 마일리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스페셜, 기종 및 좌석등급(서비스클래스)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예고없이 항공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고체동력 부득이한 사유로 선택하신 좌석이 변경될 수 있으니 탑승수속 시 기종 및 좌석번호를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모든 정보는 항공사나 공항 상황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항공권 운임정보 Ticket/Fare Information

✈️ 연결항공권 Conq. Ticket No.	-
✈️ 운임산출내역 Fare Calculation	SEL KE DPS396.34KE SEL396.34NUCT92.68END ROE1390.191051
✈️ Tour Code Tour Code	XSDQCABGQ
✈️ 산출운임 Fare Amount	KRW 1102000(Paid Amount KRW 1102000)
✈️ 지불액액 Equiv. Fare Paid	-
✈️ 세금/항공사 부과 금액 Taxes/Carrier imposed Fees	Paid Amount KRW 123100
✈️ 세금 Taxes	KRW 24000BP 20700D5 * 2025년 1월 1일 발권일 및 탑승일 기준 한국 출발 세금(BP)은 국제여객항공이용료(인천/김포 17,000원, 기타 12,000원), 출국납부금 7,000원으로 구성되며 12세 미만 소아는 출국납부금이 면제됩니다.
✈️ 유류할증료 Fuel Surcharge	KRW 78400YR
✈️ 부가수수료 Service Fees	-
✈️ 총산출금액 Total Amount	KRW 1225100 (Total Paid Amount KRW 1225100)
✈️ 지불수단 Form of Payment	CCVI XXXXXXXXXXXX05824 / XXXX/00
✈️ 발행일/발행처 e-Ticket Issue Date/Place	15OCT2025 / 17326120 / SELK1320Y * 지불금액은 (Total Paid Amount)에 부가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Notice

- ✈️ 본 e-티켓 확인증과 함께 제공된 발행 고지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티켓 확인증은 탑승수속시, 입출국/비행 통과시 제시하도록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 여행 기간 동안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e-티켓 확인증의 미용과 여권상위 미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